산업 신기술·제품 한 눈에…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개막

호남권 최대 전시회 DJ센터서 내일까지…300개사 500부스
모빌리티·뿌리산업·가전로봇 전시 첫 통합…일자리 박람회도

호남권 최대 산업전인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사흘간 여정에 들어갔다.

올해 엑스포는 그동안 각각 열렸던 국제그린카전시회를 비롯한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를 통합하는 등 호남권 최대 산업 전시회로 꾸며져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경만·양향자 국회의원, 강종만 영광군수, 알리 이자디(Ali Izadi) 블룸버그NEF 아태지역 대표,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참가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환영사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기회도시는 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는 반도체 특화단지,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광주 미래산업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 참석 내빈들은 엑스포 전시장에 마련된 국내외 신기술·신제품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을 통해 미래산업 기술력을 확인했다.

올해 전시는 완성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소재부품, 제조업 근간이 되는 14대 뿌리 기술, 가전, 드론, 로봇 등 300개 사에서 540개 부스를 마련했다. 참여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 KG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관련 기업과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국내 자동차업계 지원·연구기관 등이다.

전기이륜·삼륜차, 전기자전거 등이 전시되는 EV(전기차) 특별관과 카라반·캠핑카가 전시되는 오토캠핑레저존 등 퍼블릭존이 마련돼 행사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또 광주시 통합 홍보관에서는 자율주행기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금형, 광주 가전 공동브랜드(지엘·GIEL)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고생 1000여명이 참가해 컬링, 씨름, 창작 등 6개 종목에서 경합하는 '빛고을 로봇 페스티벌',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 차량 시승,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30일까지 디알텍, 은혜기업, 현대하이텍, 한전 에너지 밸리 기업 등 60개 사가 참여하는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도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미래산업엑스포 '북적'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2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참관객들이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 출시한 전기자동차를 시승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디음달 부터 신규시설 사전심사제 도입·자부담 운영기간 확대

광주시가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시설 지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광주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결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자치구에 신고·설치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담당공무원의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결정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고·설치한 후 2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하면 광주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타 광역시보다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에 대한 보조금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설유형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지원을 재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추경 2751억 편성…지방채로 재원 마련

시내버스 준공영제·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필수경비 우선 반영

광주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51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기정액 7조2318억원보다 3.8% 증가한 7조5069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8억원(2.9%) 증액된 6조12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3억원(8%) 증액된 1조3865억원이다.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수출 부진 등 지속적인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여파로 지방세 증가분이 없고 지방교부세 확정분도 대폭 축소돼 269억원을 감액했다.

최소경비 반영을 위해 부족한 재원은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로 대체했으며, 어렵게 확보한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필수경비와 복지·성장기반, 교통·안전, 문화·환경 분야의 자체 사업에 반영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반영된 주요 필수경비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18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13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 300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을 위한 의료기금특별회계전출금 214억원, 소방전출금 114억원, 친환경농산물과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학교급식지원 19억원 등이다.

국고보조사업 시비매칭 사업비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8000만원,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3억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9억6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또 미래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공동연구소 1억5000만원, 창업패키지 4억5000만원, 대학생 천원의밥상 49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9억9000만원 등 시비매칭분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운영 5억원, 난임시술비 1억3000만원, 육아수당 42억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인건비 50억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8억원, 정신질환자치료비 1억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5000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2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임원 7명 공모

다음달 5일~11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재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임원을 7월 5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대표이사(상임) 1명과 비상임 이사 6명이다. 비상임이사 6명 중 3명은 임기만료에 대한 충원이며, 통합기관의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해 이사 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및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7월 5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승마 저변 확대' 전남 학생 체험비 지원

초·중·고 6000명 대상…집중력 향상·비만 개선 등 효과

전남도가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와 말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학생 6000명의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체험을 바라는 학생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담당교사 지도를 받아 근처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비용 32만원 중 학생은 9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장애학생은 체험비 전액을 지원받아 참여할 수 있다. 승마체험은 집중력 향상과 비만 개선 효과가 있고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학생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론부터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말에 오르고 내리는 방법, 승마 자세, 평보, 속보 등 실습 시간으로 편성되며 10일간 진행된다.

신안 소재 초등학교 한 학생은 "우리 주변에 말이 없고 체험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 친구들과 함께 말을 타니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많은 학생이 승마체험을 통해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